

##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네트워크의 필요성 - 카자흐스탄 한국학 네트워크의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sup>1</sup>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ети Корееведением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ановле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е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Автор:** *Чан Ходжон,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Корей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чиная с 1990 года быстро развивалось, внешняя форма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многообразием корееведение напротив регрессирует. Если не развивать такие отрасли как языкознание, литература,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то результат очевиден. Чтобы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внешнюю поддержку для решения сложных проблем стоящих пере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надо укреплять их целостность.*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за прошедшие 20 лет на основе успеха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оводит планирование и организацию различ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развит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стало ведущим в Казахстане. Для улучш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произведено открыт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архива исследований, внедрено проведение интерактивных лекций, вед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учебников,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ся открытие и развитие друг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труктур. Стараются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корееведение посредством издания научных журналов,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 проведение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а также друг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труктур.*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и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использует бюллетень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домашнюю интернет страницу для становл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е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сеть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усиления объедин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рееведения, начиная с Южной Кореи, в Казахстан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успех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редняя Азия, Казахстан, Корееведе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сеть*

**주제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한국학, 네트워크*

---

<sup>1</sup> 본고는 <한중인문학회 제 23 회국제학술대회>(중국 호남대, 2013.06.28~07.02)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 1. 머리말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어교육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 수강생이 크게 늘었으며, 최근에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한국어교육이 외형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교재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교육 기관에 정착한 한국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한 봉사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서 중앙아시아 한국어교육의 성장이 가능했다. 교육원, 문화원, 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꾸준한 인적, 물질 지원도 이 지역의 한국어교육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성장이 한국학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한국학 성과는 계승되지 못하고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첫째, 한국학의 대상이 북한 중심에서 남한 중심으로 옮겨갔다. 둘째, 정치, 외교적인 필요성보다 취업, 한류 등 실용적인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셋째, 한국학의 전문성이 약화된 반면에 한국어교육의 수요는 크게 늘었다.<sup>2</sup>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현재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1) 한국학의 전문성이 약화되어 연구 성과가 저조하다.
- (2) 각 대학의 강좌가 한국어에 치중되어 한국학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3)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을 이끌 중추적인 기관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외부적인 지원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힘들며, 중앙아시아 한국학계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과정에서 차차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지역의 한국학을 진흥하고 한국학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sup>2</sup> 장호중(2013: 217-218) 참조. 러시아의 한국학은 꽤 오랜 역사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그 성과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에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주체, 대상, 목적, 범위 등 기초적인 논의도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국어교육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학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중앙아시아 한국어학 현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서 1990년대부터 민족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표 1>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육 현황(2010년 01월 현재)<sup>3</sup>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
대학(학과 및 제 2 외국어)	11	525	33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1(18개 학급)	420	20
초등, 중등교육기관	30	1,250	15
한글학교(종교단체 포함)	3	265	12
계	45	2,460	80

<표 2>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육 현황(2011년 06월 현재)<sup>4</sup>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
대학(학과 및 제 2 외국어)	16	763	36+α
알마티 한국교육원	1(14개 학급)	730	10
초등, 중등교육기관	26	784	30
한글학교(종교단체 포함)	44	1,266	69
계	87	3,543	145+α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앙아시아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관심과 ‘한류’로 일컬어지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으로 보아 한국어교육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한국어 교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sup>3</sup> 김병호(2011: 43) 참조.

<sup>4</sup> 장호중(2013: 219) 참조. 카자흐스탄은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철수함에 따라 한국어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많다.

<표 3>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한국어강좌 개설대학 현황(2010년 02월 현재)<sup>5</sup>

대학명	구분	학생수	교사수
비슈케크 인문대	학과 1992	142	18
키르기스 국립대	학과 1996	30	3
키르기스 동양대	학과 2000	81	6
아라바이예바대 경제경영대학	제 2 외국어 1999	40	1
키르기스 슬라비안대	제 2 외국어 1995	30	1
계		323	29

<표 4> 카자흐스탄 한국어강좌 개설대학 현황(2011년 06월 현재)<sup>6</sup>

대학명	구분	학생수	교사수
카자흐 국립대	학과 1994.09	95	12
카자흐 국립사범대	학과 1991.09	22	1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학과/제 2 외 1999.09	228	12
크질오르다대	학과 1991.09	8	?
제트수 국립대	학과 1998.09	62	2
타라즈 국립사범대	학과 1999.09	22	2
동카자흐 광성전문대	제 2 외국어	45	1
카자흐 경제대	제 2 외국어	96	1
동카자흐 국립대	제 2 외국어	36	2
남카자흐 국립대	제 2 외국어	33	1
아스타나 린그바대	제 2 외국어	11	?
카라간다 부케토프대	제 2 외국어	11	?
알마티 MAB 아카데미	제 2 외국어	15	?
카자흐 국립예술아카데미	제 2 외국어	10	1
KIMEP 대	제 2 외국어	50	?
알라타우 전문대	제 2 외국어	19	1
계		763	36+α

중앙아시아 여러 도시의 주요 대학들에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제 2 외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학생 수에 비하여 한국어 교사가 많

<sup>5</sup> 김병호(2011: 44) 참조.

<sup>6</sup> 장호중(2013: 219) 참조.

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어 교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갖춘 비슈케크 인문대,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등도 동양학이 아닌 한국학으로서의 역사나 정치, 경제 등의 전문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표 5>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 교수진(2013년 06월 현재)

이름	직위	전공	학위	임용년도 (본교)
박 벨리	한국학센터 소장	유럽어학	박사	1998.09
김 아나스타샤	한국학과 학과장	한국어	박사	2005.03
한 벨리	전임강사	한국어	박사 재학	1999.02
김 울리야나	전임강사	한국학	석사	2006.09
부르미스트로바 E.	강사	한국어	석사	2006.09
누르갈리에바 A.	강사	한국어	석사	2008.09
전 엘레나	강사	한국학	석사	2010.02
김 이리나	강사	언론학	학사(5년제)	2012.09
남 나탈리야	강사	경영학	석사	2013.02
방정식	강사	문화학	석사	2010.09
김영경	강사	상담학	석사	2010.09
김 Susan K.	강사	영어영문	석사	2012.09
장호종	KF 파견교수	한국어학	박사	2009.09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데, 학생 수나 교사 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대학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한국어교육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학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언어학,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등의 한국학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어교육의 성장도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를 것이 분명하다.

이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는 2012년 10월 9일 한국학 센터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에 박 벨리 교수가 부임하여,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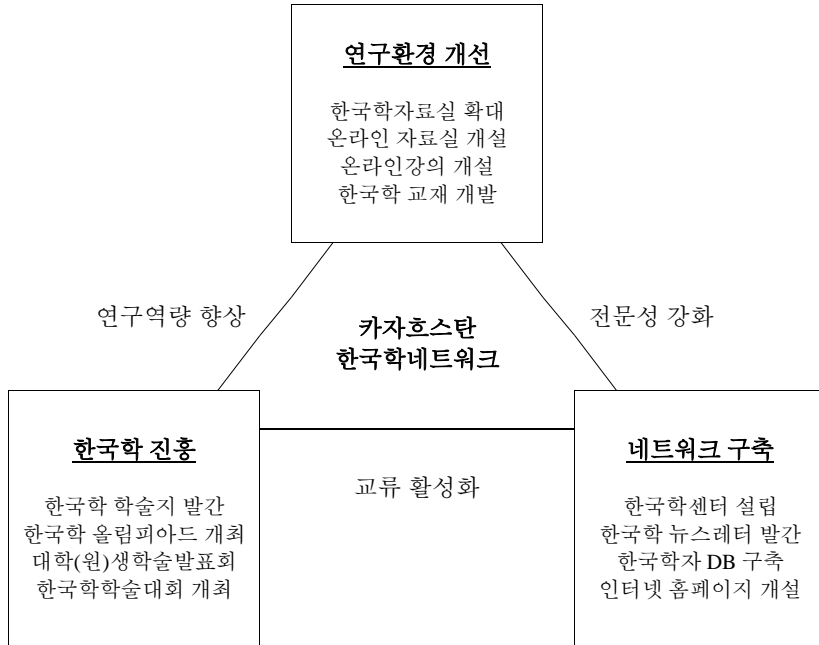
한국학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학 진흥의 여러 사업을 소개하고,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구축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3.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현황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는 한국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2012년 10월 한국학센터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1) 한국학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학의 연구 역량을 향상한다.
- (2) 온라인 강의 개설, 교재 개발 등을 통하여 한국학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3) 한국학 연구자 D/B 구축,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학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림 1>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의 한국학네트워크 현황



한국학센터는 위와 같은 연구 사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 한국학센터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의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3.1.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한국학센터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사전류를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연구자료지원”을 통하여 전문적인 한국학 서적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념의 인쇄 자료는 비싼 해외 운송비와 보관 장소 부족, 자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술논문 등의 전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시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학센터는 한국학술정보(KSI)와 계약을 맺고 2013년 3월부터 한국학 DB인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학 교수와 학생들은 한국학센터에서 KISS 홈페이지(<http://www.kiss.kstudy.com>)에 접속하여 논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 교수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공이 주로 어문학에 집중되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개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강의를 꼽을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여 해외 한국학 대학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은 더욱 좋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Global e-school”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며, 온라인 강의 시설을 갖춘 강의실을 준비하였다.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방식과 VOD 방식이 있다. 실시간 방식은 한국에 있는 교수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강의와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시차(3시간), 학기 운영의 차이, 학점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따라서 VOD 방식으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은 대체로 한국어교육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각 대학의 강좌 역시 한국어에 치중되어 있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교과과정이나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개발한 대학의 전문적인 한국학 교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학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민은행이 지원한 <카자흐인을 위한 한국어>(전 6권)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한국학 교재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다양한 한국학 교재를

개발할 계획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sup>7</sup>의 지원으로 2015년에 발간할 교재는 <한러 러한 통번역 입문>과 <비교문화 1>이다.

한국학 교수진의 전공과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국학 교재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씨앗형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1 단계 교재들을 개발하고, 이후 2, 3 단계 교재를 준비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학의 전문성이 약화되어 연구성과가 저조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문 발표, 학술대회 참가 등을 강화하였다.

### 3.2. 한국학 진흥 및 확산

카자흐스탄에는 한국학과 관련한 정기적인 학술지와 학술대회가 없어서 연구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적다. 이에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에 동기와 목표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국학 학술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한국학> 1호는 2013년 2월에 발간하였는데, 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네덜란드 등 6개국 한국학자들의 논문 36편을 수록하였다. 분야별로는 언어, 문학, 교육 관련 논문이 20편, 역사, 사회, 문화 관련 논문이 12편, 정치, 경제 관련 논문이 4편이다. 언어별로는 러시아어 논문이 23편, 카자흐어 논문이 1편, 영어 논문이 3편, 한국어 논문이 9편이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한국학> 창간호의 목차이다.<sup>8</sup>

#### <카자흐스탄 한국학 1>

(R은 러시아어, K는 카자흐어, E는 영어. 논문은 러시아어 알파벳 순.)

##### 0. 축사(R) 등

1. 박 넬리. 카잔의 미간행 한국어교육 자료(1904년)에 대하여 (R)
2. 광충구. 중앙아시아 고려말 어휘의 체계화와 정밀화
3. 권재일.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구어와 문어

<sup>7</sup>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은 “해외 한국학 기관의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지역별 한국학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국학의 소프트파워(soft-power) 강화와 해외의 한국학 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한국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씨앗형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다.

<sup>8</sup> <카자흐스탄 한국학>에 실린 논문들은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kaznks.kz>)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4. 김 아나스타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어교육 기본 교재 분석 (R)
  5. 김 안젤리카. 한국 동화문학 발전에서의 방정환의 역할 (R)
  6. 김재욱.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내용학 연구
  7. 김영경. 초, 중급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쓰기지도
  8. 김 류드밀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국어 지명의 변천 (R)
  9. 김 나탈리야. 한국어 대화상의 문장 고찰 (R)
  10. 김수현. 카자흐스탄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의미 대비(對比)
  11. 김 타티야나. 한국어의 반의어 (R)
  12. 이순주. 학교 규모와 학업 성취와의 관계 (R)
  13. 이순주, 이상철. 한국 초·중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
  14. 이 나탈리야. 모더니즘 시인김기림(1908-?) (R)
  15. 방정식.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16. 포홀코바 E. A. 현대 한국어 유의어의 체계 (R)
  17. 트로피멘코 O. A. 17~19 세기 한국어 동사의 특수성(R)
  18. 한 넬리. 갈등 상황 하의 Speech Sterotype 분석 - 한국어 호칭 체계를 중심으로 (R)
  19. 장호중. 카자흐스탄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학센터의 역할
  20. 스토크로바 L. 고려말의 형성 (E)
  21. 블랙타예프 YU. O. 20 세기 후반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형성 (R)
  22. 갈리에프 A. A. 한국 사회 및 정치에서의 역사의 역할 (R)
  23. 이바노프 A. Yu. 극동 이주(1864-1900) 고려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R)
  24. 김 알렉산드르. 발해에 사슴 사육이 있었는가?(R)
  25. 김 알렉산드르. 20 세기 초 한반도에서의 발해 인식 (R)
  26. 김 게르만. 재일동포의 변천 (1920-2000) (R)
  27. 김 울리아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체성: 설문 조사 결과 (R)
  28. 박 류드밀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결혼 풍습의 의미 고찰 (R)
  29. 손 스베틀라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언어, 문화의 현재와 전망 (E)
  30. 수르지크 M. M. 19 세기 연해주 고려인의 전통적인 농사법과 일상 생활 (푸 줄로프 지역을 중심으로) (R)
  31. 정 빅토리아. Experience and KI 氣 in Gicheon, Psycho-physical Practice of Contemporary Korea (E)
  32. 장 류드밀라. 고려인의 전통 요리 (R)
  33. 바이술타노바 K. SH. 한국 경제의 재벌 중심 자유주의 (R)
  34. 정해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통상·경제 분야의 협력: 장애요소 및 전망
  35. 오스파노프 N. M. 한국 언론에 비친 카자흐스탄 대통령 (R)
  36. 손영훈. 카자흐스탄의 3 중언어정책 (K)
  37. <참고> 카자흐스탄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38. <참고>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 e. 집필진 (R) 등

본 학술지를 통해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생소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을 소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카자흐스탄 한국학>은 매년 2월 1회 발간할 예정이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해마다 2월 또는 3월에 “카자흐스탄 대학생외국어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학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외국어문학 부문을 개최하고 있으며, 통번역 부문은 3-4년 후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는 10개 도시 20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시 간의 거리가 멀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대학이 없어서 대학 간의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마티에서 수도인 아스타나는 기차로 20시간, 알마티에서 비교적 가까운 도시인 탈디쿠르간은 택시로 3시간이 소요된다.

기존의 한국학 관련 행사들은 각 지역이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되었을 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된 경우가 없었다. 한국학올림피아드도 2012년까지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와 카자흐 국립대의 한국어문학 전공생들만 참가하여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2013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어문학’과 ‘한국어’ 부문으로 나누어 비전공자는 물론, 타 도시 학생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그 결과 알마티, 아스타나, 타라즈, 칠펜트, 탈디쿠르간,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등 6개 도시 10개 대학에서 41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전국 규모의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카자흐스탄 각 지역 및 대학의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국학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교류와 경쟁을 통해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의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각 도시의 한국어교육 열기를 한국학으로 흡수하기 위해 “한국학대학(원)생학술발표회”를 2-3년마다 개최할 것이다. 1회 대회는 2014년 4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표 6> 2013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경시 내용

	한국어문학(Korean Philology)	한국어(Korean Language)
테스트 작문 발표	문법 50, 어휘론 25, 문학 25 문항 분량 600-800 자 프레젠테이션 10 분 이내	한국어 30, 한국문화 20 문항 분량 제한 없음 말하기 5 분 이내

<표 7> 2013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픽피아드 참가자

결선 참가자(단위: 명)		어문학	한국어	합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6	4	92
	카자흐 국립대	6	4	
	카자흐 경제대	* Korean	2	
	알라타우 컬리지	Philology	1	
	알마티 한국교육원	전공자	4	
타 도시	타라즈	-	2	12
	침켄트		2	
	탈디쿠르간		2	
	우스티카멘노고르스크		2	
	아스타나		4	
계		12	29	41

\* 카자흐스탄에 한국학과는 세계언어대와 카자흐 국립대에만 개설되어 있음.

\*\* 지역별, 대학별 예선 참가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전공자들은 대체로 언어, 문학, 역사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학 분야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 한국학계의 내적 교류 협력을 통하여 현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학 연구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학 행사를 개최하여 연구 교육 성과를 널리 보급해 나갈 것이다.

2012년에는 “한국학센터 개원 및 박 벨리 교수 고회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네덜란드, 체코, 한국 등 6 개국에서 60 여 명이 참가하였다. 6 개국 14 개 대학의 학자들은 4 개 Section 에서 47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향후 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한국학 연구의 목표 의식을 확고히 한다. 이를 위해 매년 10 월 한국학센터에서 “한국학포럼”을 개최하고, 2-3 년마다 “한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2014 년 8 월에는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와 연계하여 한국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3.3.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지난 20 년 간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학자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은 카자흐스탄 한국학 진흥을 선도하는 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국학센터가 중심이

되어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의 한국학계와 교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학뉴스레터를 통해 한국학의 성과를 보급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뉴스레터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급해 나가는 데에 유리하다. 뉴스레터는 매년 4월과 10월, 2회 발행하며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 4월 30일에 “카자흐스탄 한국학뉴스레터” 1호를 발간하여, 카자흐스탄 5개 대학의 한국학 소식을 실었다. 인쇄본은 카자흐스탄 각 지역의 한국학 대학에 발송하였고, PDF 파일은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http://kaznks.k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학센터의 한국학 성과를 보급할 것이다. 교육자료, 연구자료, 한국학학술지, 한국학뉴스레터 등을 제공하고 카자흐스탄 한국학연구자 DB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KazNKS)를 구축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터넷홈페이지는 2013년 5월에 개설, 9월까지의 테스트 및 홍보 기간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충실히 한 후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4. 맺음말

중앙아시아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한국어교육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학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언어학,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등의 한국학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어교육의 성장도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를 것이 분명하다. 외부적인 지원에만 의존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힘들고, 중앙아시아 한국학계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과정에서 차차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지난 20년 간의 한국학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학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려고 한다.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자연구자료실 개설, 온라인강의 개설, 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술지 발간, 올림피아드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한국학 보급에 힘쓰고 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뉴스레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해외 한국학과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 내에 한국학 성과를 보급하여 한국학의 진흥을 꾀한다.

이상과 같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학 진흥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의 사업 방향

사업	내용
1.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1.1. 연구 및 교육 자료 구비
	1.2. 강의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1.3.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2. 한국학 진흥 및 확산	2.1. 연구 성과 보급
	2.2. 한국학 인력 양성
	2.3. 학술 교류 활성화
3.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3.1. 한국학 진흥 선도
	3.2. 연구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참고문헌

1. Концевич, Л.(2003), “Modern Korean Studies in Russia”,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3*, Москва: Муравей, pp.7-76.
2. 기광서 역(1999), Vanin, Yuri et al., <러시아의 한국 연구: 한국 인식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적 구조>, 풀잎, 358p.
3. 김덕중(2009),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연구 현황 - 연구자, 연구분야, 연구성과 분석”, <제 1 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p. 209-218.
4. 김병호(2011),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탐색”,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70p.
5. 김혁(2010),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제 2 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 중앙아시아 국가정체성과 세계화>,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p.93-116.
6. 박일재, 홍사명 편(1990), <소련의 한국학>, 한국학술진흥재단.
7. 임영상, 김현택, 김 게르만(2004), <독립국가연합 지역 한국학 진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8. 장호중(2009),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러시아의 한국어교육>, 박문사, 385p.
9. 장호중(2013), “카자흐스탄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학센터의 역할”,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1*,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pp.217-228.